

문서 기록으로 남겨진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예언자 평가에 대한 사회사적 문헌사적 접근

오민수(대신대)

1. 들어가는 말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교 지역에 있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변 민족들 중에 살고 있었다. 고대 팔레스타인은 기본적인 문화 유형 — 언어, 문학, 신화 및 신학적 관점 등 — 은 메소포타미아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리적으로 이집트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문화적으로는 이집트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다.¹ 고대 오리엔트의 정치, 사회, 문화적 맥락 내에 있던 이스라엘의 존재는 양면적이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민족이었다. 이러한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 민족과 구별되는 특수함이 있다. 선택, 언약, 율법, 계

1 J. 맥스웰 밀러/존 H. 헤이즈,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박문재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30.

시가 그들에게 있었다. ‘첫 번째 언약 백성’이 지니는 특수성 역시도 고대 오리엔트 사회와 문화라는 역사의 흐름 속에 새겨져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대 오리엔트의 민족 중에 한 민족이고 국가였다.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신학적 문화적 독특성이 있었지만, 그러한 특수성은 고대 오리엔트의 공동문화의 지반 위에 있었다. 왕정, 예언, 제의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다른 주변 민족들에게도 이스라엘의 국가 형성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주변 민족 역시 예언자들과 예언술이 있었다.²

예언술에는 전조를 살피는 ‘귀납적인 것’(inductive, 점술 예언자)과 한 개인이 신탁의 매체로 활동하는 ‘직관적인 것’(intuitive, 직관적 예언자)이 있다. 귀납적 예언은 고대 근동에 보편적이지만 직관적 예언은 희귀하였다. 마리(Mari) 서판에 따르면, 직관적 예언자는 반(半)유목적 배경의 출신으로 황홀경에 도취되어 신탁을 받았으며, 그들은 메시지를 문서로 복사하여 왕이나 관리들에게 보내었다. 반면, 귀납적 예언자들은 두 부류인데, 그들은 보고 관찰한 것을 말하는 전문 예언자들과 꿈꿨던 것을 말하는 속인 예언자들로 구분된다.³ 문서를 남겼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예언은 성경의 예언자들과 근접하나 그들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는 달리 서로 연관성이 없는 고립된 신탁이었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 특별히, 왕정기 전후로 — 고대 오리엔트와 신탁 수단을 공유하였다. 최종적 측면에서 볼 때, 점과 마술에 내재하여 있는 위협들 때문에, 계시의 수단들(제비뽑기, 꿈, 환상, 우림과 둠뭉, 선지자들)에서

2 윌리엄 반 게메렌, 「예언서 연구」(채천석 옮김), (서울: 솔로몬, 2013), 33.

3 키케로(Cicero, BC 106-43) 이래로 직관적 예언술과 귀납적(또는 ‘도구적’) 예언술로 구분되었다. 계시를 환청(Audition)과 환상(Vision)으로 전하는 직관적인 예언술은 구약 예언자들에게서 관찰된다. 귀납적인 예언술은 별자리 또는 제비뽑기(‘우림과 둠뭉’, 스 2:63) 등과 같은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정조를 살폈다. Martin Rösel, *Bibelkunde des Alten Testaments* (Neukirchen: Neukirchen-Vluyn, 1996), 67.

제외한 형태들은 금지되었다(레 19:26-29, 31: 신 18:10-11).

계시(예언 신탁)는 그 시절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도 있지만, 예언의 점진적 성취적 견지에서 시절을 넘어서는 여분적 측면도 있다. 이스라엘 예언자의 메시지는 개인적 특성, 당시의 상황, 백성들의 필요, 계시의 내용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지만 다른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기적이다.⁴ 첫째, 이스라엘의 예언은 역사 속에 드러난 신 계시 중심적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증언하였고, 인류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구원(용서, 지혜, 계시, 축복, 보호, 통치)이 필요함을 증언하였다. 둘째, 예언 메시지의 성취는 '점진적'이다. 굴곡과 변화가 있으며, 불연속과 연속이 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예언은 고대 오리엔트의 예언술이라는 지평 위에 있다는 점에서 고대 오리엔트의 공동문화 속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 중심적이고, 점진적 성취라는 측면은 이스라엘의 예언 사상의 참과 거짓을 규명하는 기본 바탕이 된다.⁵

앞으로 전개될 구약성경 문헌 기록에 남겨진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논쟁에서 있어서도 이 양면성은 불변의 상수로 자리매김하며, 예언의 판별은 복잡한 성찰의 과정이 있어야 함을 보여 줄 것이다. 본 소고는 이스라엘 예언 사상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신명기 18장 15-22절 증언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상황과 참 거짓 예언을 구분하여 볼 것이다.⁶ 이를 위해, 먼저 성경 속 예언자들에 대한 용어적 이해와

4 윌리엄 반 게메렌, 윗글 (2013), 58-59.

5 윗글.

6 참-거짓 예언자 논쟁에서 사회사적 문헌사적 접근은 예언서 연구에서 선례가 없다. 최근 논문으로 김래용, "예레미야 25-44장의 메시지: 3단계 구성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8집 (2022년 9월), 10-42이 있다. 김래용은 예레미야 26-29장이 거짓 선지자 모티프를 통해 보충되고 있으며, 예레미야 30-33장은 거짓 선지자와의 논쟁에서 강조된 회복이 구체적 언급이 없음으로 본문군의 연관성을 입증한다. 접근의 목적과 한계상 거짓 선지자의 사회적 실체에 대해 두 본문군의 차이나 공동점, 시대적 논점은 접근할 수는 없

예언자들의 사회상을 규명해 볼 것이다. 그런 다음, 참-거짓 예언자에 대한 국내 잘 알려진 견해를 소개한 이후 신명기 18장의 예언자 법 내에서 야훼가 세운 예언자와 그렇지 않은 예언자의 판별 기준을 탐색할 것이다. 이 탐색의 결과는 신명기 18장 15-11절은 문헌사적 조망을 요청한다. 따라서, 참 예언의 형성과 문헌화 과정, 거짓 예언자의 개념 형성을 사본학적으로 재조명하는 것으로 전체를 마무리할 것이다.

2. 예언자 이해

과연 어떠한 종교현상을 예언술 연관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 내에 어떻게 개념화되었는지는 구약성경 내에 예언자 용어를 통해서 반추해 볼 수 있다. 우선, 연구자는 예언자들을 용어를 정리해 본 후 각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사회적 직군으로 접근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의 위치를 고대 이스라엘 사회 문화 가운데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1) 예언자들의 용어적 정리

이스라엘에서 예언자를 통칭하는 최종적인 말은 נָבִיא(나비, 선지자)라는 용어로 고착된다. 예언자에 대한 여러 지칭은 사무엘상 9장 기스의 아들 사울과 그의 사환과의 대화 속에 나타난다. 사울의 사환은 처음 ‘하나님의 사람’을 방문할 것을 사울에게 제안을 하고(삼상 9:6), 사무

었다. 또 다른 예언서에 관한 논문으로, 강철구, “심판선언양식을 통해 본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숨은 의도”, 「구약논단」 25집 (2019년 9월), 130-157. 강철구는 요나의 니느웨 심판선언양식의 의도적 변경(기소할 죄 항목 열거 없이, 골장 재앙선언)을 주목한다. 그의 연구는 요나서 본문 내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예언자 현상이나 예언자들의 사회상에 대한 고려는 연구주제의 한계상 이루어질 수 없었다.

엘상의 최종 편찬자(또는 저자)는 옛날에는 **רֹאֵה**(로에, 선견자)로 불렸지만, 지금은 **נָבִיא**(나비, 선지자)로 부른다고 말한다(삼상 9:9). 즉 사무엘상 9장 본문에는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칭하는 말로 선지자를 사용하고 있다. 예언 현상은 왕정과 함께 중흥한다. 왕정 전야와 왕정 과도기 과정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예언자들에 대한 상이 집약되어 독자들에게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언 현상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 우리는 나비라는 용어로 고착되기 이전 상태를 규명하기 위해 더 오래된 지칭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피터슨(David L. Peterson)⁷의 용어에 따른 구분

피터슨은 예언자 용어와 기능의 연구에서 로에와 이쉬 하엘로힘, 그리고 호제호와 나비를 한 단위로 하여 구분한다. 이러한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רֹאֵה**(로에, 선견자)라는 용어가 있다. 이들은 공중 가운데 민가에서 활동한다. 공적인 사회인물로 거룩한 자로 일컬음을 받는다. 사무엘의 경우처럼 로에는 이스라엘 사회구조 내에 완전히 융합되어 있다. 사무엘상 9장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어딘 가로부터 오는 사무엘을 기다리고 사무엘은 마을 제의를 집행하고 주관한다.

둘째는, **אִישׁ הָאֱלֹהִים**(이쉬 하엘로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들은 순회자하는 것이 특징이며, 거룩한 자로 여겨진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기사(열상 17:14), 엘리야와 오바댜의 대화(열상 18:12), 엘리야의 승천기사(열하 1장), 엘리사의 임종 전 요아스 왕과의 대화(열하 13:19) 속에서 증빙되는 바와 같이 주변에 그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이

7 비교, David L. Peterson, *The Roles of Israel's Prophets* (JSOTSS 17: JSOT, 1981), 30-34. 윌리엄 반 게메렌, 윗글 (2013), 55에서 재인용. 피터슨은 로에, 이쉬 하엘로힘, 그리고 호제호와 나비를 한 단위로 구분한다.

야기가 생겨났다.

셋째는, חִנָּן(호제호, 환상가; [국역] 선견자)로 환상이나 이상을 보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 등 소명 기사, 12 선지서의 환상 기사를 통해 반증된다. 이들은 왕정과 연관이 있으며 사회 도덕적인 문제를 이슈로 삼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נָבִיא(나비, 선지자)와 기능상 동일하다.

예언자의 용어는 그들의 활동의 부각되는 측면을 보여주었다. 예언자 전통은 지역에 따라 역사적 정황에 따라 활동한 면에 있기에 지리적 역사적 구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로스의 구분 역시 의미가 있다.

(2) 로스(James S. Ross)⁸의 지리 배경상 구분

로스에 따르면, 호제호는 지역적으로 남 유다에서 활동하였으며, 신의 회의 포고자로서 말씀과 환상으로 계시를 수납한다. 이런 환상가들은 남방 유다적 배경의 예언자들로 다윗 언약과 시온상 전승에 깊이 관계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나비로 불리던 예언자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활동하며, 언약의 대언자로서 주로 시내산 언약과 출애굽 전통과 관계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북방 선지자 엘리야의 여호와 산에서의 재소명 기사와 12 선지서의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예언 메시지의 토대를 점검하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로스의 지리적 역사적 구분을 통해서 왕정기 전후 남유다 지방과 북이스라엘 지역의 신앙생활 토대를 이룬 신학적 전통의 주안점의 차이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8 James F. Ross, "The Prophet as Yahweh's Messenger", Bernhard W. Anderson/Walter Harrelson (eds.), *Israel's Prophetic Heritage* (Essays in Honor of James Muilenburg; London: SCM Press, 1962), 111-121. 윌리엄 반 게메렌, 엇글 (2013), 55에서 재인용.

2) 예언자들의 사회상 - 사회사적 입장

(1) 왕정 예언자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나단’이 있다. 나단은 항상 ‘그 선지자’로 지칭되고 있다(אִי־נָדָן הַנָּבִי, 삼하 7:2). 이 지칭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직위와 왕권과의 독립을 뜻하고 있다. 그는 성전건축 계시를 전달하였으며 왕가의 후손인 솔로몬의 유아 시절 ‘여디디아’(יְדִיָּהוּ/하나님의 친구’, 삼하 12:25)로 부르게 하였다. 왕정과 함께 하는 그의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나단은 반란 때는 솔로몬이 왕위 계승하도록 도왔다(왕상 1:34). 나단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는 밧세바 사건이 유일하다(삼하 12:1-25). 사무엘 역시 왕정 선지자에 속한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두 왕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삼상 10:1; 16:13), 왕정이 수행하던 전쟁에서도 가담하였다(삼상 13:8). 하지만, 사울 왕이 실정하였을 때 책망한다(삼상 13:13; 15: 22-23). 예언자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의 서거에 조가(弔歌)를 지어 불렀다(대하 35:25).

열왕기상 22장은 왕이 선택하고 임명한 400명에 이르는 소위 왕정 선지자가 나온다. 이들은 전쟁 신탁을 수납하기 위해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아합과 여호사밧의 친정 가운데 공식적으로 예언 신탁을 받는다. 이들 무리의 수장은 그나아의 아들 시드기야였다. 이들의 신탁과 반대된 말을 한 사람은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였다. 이들은 고대 오리엔트에 잘 알려진 기술들을 사용하여(참조, 렘 27:9) 왕의 도모가 신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물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수령이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대표적인 왕정 예언자들의 활동상을 간추려 볼 때, 이들의 임무는 왕에 대해 하나님과 직결된 조언자이고, 비평가이며, 왕의 행적의 기록자들이었다(대상 29:29). 이들은 왕이 언약을 떠나지 않고 신정하에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책임 맡은 군주제의 파수꾼들이었다. 국사인 전쟁에서도 일정한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왕정과 예언자의 밀접한 관계는 고대 오리엔트에서 매우 흔한 일이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왕정 선지자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왕들의 배교 이후, 이 예언자들은 궁정 밖으로 물러난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예언의 말씀에 대한 무감각과 철저한 무시를 폭로한다. 그들은 예언자들을 거부하고 투옥했고,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긍정적 반응을 얻었지만, 대부분은 소외와 경멸을 당하였다.

(2) 예언자의 무리들

이들의 활동은 엘리야-엘리사 이야기와 사울의 통치 기간, 그리고 오므리가(家)의 통치 기간 중 두드러지게 보도된다. 모든 구성원이 ‘나비’(נְבִיא)라는 칭호를 취하고 있고, 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영(‘하나님의 신’)에 붙잡혀 있고 자기(통제력)를 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삼상 10:5; 19: 18-24). 이들의 예언에는 음악을 동반한 엑스타시가 있었다(왕하 3:15).⁹ 하지만 황홀경 상태에서 신탁은 있지만 독자적인 내러티브를 형성할 만한 메시지는 문헌에 기록이 드물거나 남아 있지 않다.

엘리사 이야기에서 ‘벤 나비’(‘예언자의 아들’)는 여러 지역에 등장한다(왕하 2: 4:1; 6:1). 엘리야는 ‘예언자의 아버지’로 명명되었다(왕하 2:12). 예언자 무리에 들지 않았지만, 예언자로 소명받은 사람이 아모스이다. 예언자 아모스는 자신은 예언자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בֶּן־נְבִיאִים אֲנִי אֵינִי, 암 7:14). 이 구절은 주전 8세에도 예언자의 무리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한다. 개별 예언자는 속한 자신의 그룹의 지원을 받았음을 추정할

9 “거문고를 탈 때(בְּנִיבְרִיתֵנוּ / ὡς ἐψαλλεν ὁ ψαλλων)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더라”

수 있다.¹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지칭은 예언자의 무리들의 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정이나 궁내, 그리고 왕정에 의해 제도화된 제의의 문맥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예언자의 무리가 예언서 기록에 남긴 기여는 대단하다. 구약성경 내에는 문서 예언자와 비(非)문서 예언자가 있는데, 문서 예언자의 경우 ‘이스라엘 심판’-‘이방 심판’-‘이스라엘의 회복’라는 예언의 구조를 띤다.¹¹ 이런 패턴의 구조는 예언자들의 글이 수집되었고 집대성되어 편찬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문서 예언서에서 예언자 자신의 선포를 적었다는 보도도 있지만(사 8:16), 대다수의 경우 제자들이 예언자의 계시를 수집하고 집대성하였다(렘 36:1-4; 27, 32; 사 8:16f; 30:8-15).¹² 이사야 8:6절은 전자를, 예레미야 36:1-4절은 후자를 입증해 주고 있다.

(사 8:16)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תָּוַחְתָּ וְתָבֵרָה) 율법(תּוֹרָה)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합하라

10 Aaron Schart, “Prophetie/AT”, <https://www.bibelwissenschaft.de/stichwort/31372/>.

11 오토 카이저, 「구약성서신학 III」 (원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12), 112-148. 원제는 Otto Kaiser, *Der Gott, des alten Testament*, Bd. II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3); 에리히 쉐어, “애가”, 쉐어(편), 「구약성경 개론」 (이종한 옮김), (경북 왜관: 분도출판사, 2012), 727-728. 원제는 Erich Zenge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2004). 예언서들은 독특하게 구조화 되어 있다. 호세아서와 미가서는 [이스라엘의 범죄 - 심판 - 이스라엘의 구원]의 구조를 보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아모스서, 스바냐서 등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 - 심판 - 이방민족의 범죄와 심판 - 이스라엘의 구원]을 나타내는 구조로 확대되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12 Gehard von Ra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I: Die Theologie der prophetischen Überlieferungen Israels* (KT 3;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¹⁰1993), 48, 각주 18. 수집이 예언자의 위탁인지 아니면 특징 그룹의 청탁인지 입증할만한 확실한 정보는 알 수 없다. 어떤 경우는 예언자들의 유산이 구두 전승 단계를 거쳐 전수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 예언자의 생존 시기에 이미 문서 고착화 작업이 진행된 경우도 있다(S. Movickel, *Prophesy and Tradition* [1946], 62ff.). 주전 2천년기의 팔레스타인은 이미 필자가 영적 삶과 서신 왕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화권이였다(G. Widengren, *Literary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Hebrew Prophets* [1948]).

(렘 36:1-4)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사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 (מגילת־ספר) 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 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3) 제의(성전) 예언자

구약에서는 ‘제의 예언자’ 또는 ‘성전 예언자’에 대한 개념어가 없다. 고대 오리엔트의 이웃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의 흔적들을 재구성해 볼 수 있다.¹³

- ① 왕정 후기에, 제사장과 예언자는 30회 공히 사용되는데, 이 두 그룹의 활동의 근접성을 말하고 있다.
- ②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나 비판의 메시지 없이, 다른 민족의 재난만 선포한 문서 예언자들의 글들이 있는데, 나훔과 하박국, 오바다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 메시지가 없다는 것은, 이들의 글들이 현존 사회체제와 질서를 보호하고 안정화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활동 분야에서 종사했던 예언자들로 소급될 수 있음을 뜻한다.
- ③ 시편 중, 대다수 탄원시에서 급작스러운 ‘어조 전환 현상’이 관찰된다. 탄원하던 기도자가 탄원에서 갑자기 기도 응답의 확신 속에 감사하는 현상이 있다. 이는 제의 집례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응답을 주었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베그리히(J. Begrich)에 따르면, 제사장이 이런 응답을 선언하였다고 한다(삼상 1:17). ‘어조 전환 현상’은 이사야(또는, 소위 제2이사야)나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나타난다.

13 Aaron Schart, “Prophetie/AT”, <https://www.bibelwissenschaft.de/stichwort/31372/>.

3) 참 예언자와 거짓자 예언자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레온 우드의 연구¹⁴는 아주 고전적인 연구이며 내러티브 서술 진행 순서에 따라 참과 거짓 예언을 구별하고 있다. 우드는 참 예언자가 먼저 있고 후에 거짓 예언자가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거짓 예언자들은 참 예언자들로부터 타락한 무리라는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은 두 가지 분류가 있다. 첫째 부류는 하나님을 아닌 다른 신들을 의지하여 예언하는 자들이고, 둘째 부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언하는 자들이다. 참과 거짓은 구분 기준은 참 예언자들은 복술을 행하지 않으면서 메시지의 성격에 있어서 거짓 예언자들처럼 평강을 예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들은 반대에서 주저하지 않으며 고난을 감수한다. 참 메시지는 율법이나 다른 참 예언자가 전한 메시지와 일치한다. 참 예언자의 예언은 성취되며 기적을 행한다는 것으로 정의한다. 거짓 예언자는 선포에 있어서 돈을 주면 좋은 예언을 그렇지 않으면 반대 예언을 행했다. 그들은 속이고, 취하고, 거짓말한다. 영적 분별력을 지닌 자들은 이를 구분할 수 있음을 말한다.

우드의 입장처럼,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의 예언은 당연히 다른 신들의 계시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적인 예언자들, 예를 들면 발람(민 22-24)이나 엔돌의 신접한 여인(삼상 28)을 사용하시어 참인 계시를 전달하기도 하신다. - 우드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보도된 두 경우가 '이야기 된 시대'로는 신명기 18장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진 이후라는 점에서 그의 논지는 설명의 한계에 봉착한다. 민수기와 사무엘 보도는 이미 설정된 예언에 대한 가이드라인(신 18)에 저촉되거나, 또는 넘어서고 있다. 성경의 기록자는 이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예언을 전달하

14 레온 우드, 「이스라엘의 선지자」(김동진 옮김), (서울: CLC, 2012), 150-166.

실 때, 주로 매체를 수신자 그룹인 자기 백성 중에 예언자를 택하신다. 하지만, 참 예언이 먼저이고 거짓 예언이 나중이라는 우드의 구분법은 구약 내러티브가 — 여러 역사 자료들이 공존하였지만 — 특정 주제와 목적으로 인해 기록되었다는 독특한 면을 간과하고 있다.

반 게메렌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거짓 예언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분류한다.¹⁵

| | 거짓 예언자 | 참 예언자 |
|-----|---|---|
| 내용 | 계시와 종교를 결합하는 혼합주의 | 모세 계시의 수호자들 |
| 선포 | 위안을 주는 주제들 선택(선택, 언약, 성전의 불가침성, 다윗언약, 시온신학)하였으나, 하나님의 경고와 위협들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 자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전체적 선포 |
| 권력 | 권력 구조(현실적 정책) 의존적 옹호자 | 독립적, 조롱과 음모의 표적 |
| 목표 | 인간의 이상, 꿈, 비전, 제도를 위해 산다. | 성령 왕국 건설 |
| 지향성 | 인간 중심의 윤리: 대중에게 수용되는 방식으로 모세의 계시 해석, 경건한 관습(기도, 희생, 금식)을 실천한다. | 신 중심적이며 종말론적: 당장의 보상과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결정적이며, 선행 또한 새 세계의 상의, 정의, 사랑, 충성, 평화)과 일치해야 한다. |
| 현재 | 유명세와 권력을 누리 |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며 고난 겪음 |

반 게메른은 참과 거짓 예언자의 구분의 분명한 기준을 모세 계시에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거나(렘 2:8; 23:27), 도덕적 감각이 해이하거나(렘 23:14), 마술과 점을 행하거나(사

15 윌리엄 반 게메렌, *윗글* (2013), 76-77, 81-87.

8:19; 렘 14:14), 메시지의 성격에 있어 안락과 안정과 번영을 설교하는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이다. 거짓 예언자들은 직업적 예언자 단체에 속하였고, 그 시대에 필요에 응답하는 대중주의와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였다. “오라 우리가 피어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렘 18:18)는 그들의 이념을 반영한다. 그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과거 행위에 바탕을 둔 현상유지적이며, 이런 목적을 위해 신성한 것들의 재구성한다.

반 게메른의 입장은 성경의 최종 본문과 구약 정경화 이후에 시대로부터 출발하여 구약의 예언자들의 시대상과 그들의 특징들을 결론적으로 요약해주는 면에서 유익함이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는 반대로 참 예언자 역시 꿈과 환상으로 예언한다. 계시의 형성의 최종 단계에 있어서 회고적 관점에 예언 현상과 그 작용을 바라보는 것과 당시 시대 속에서 현상을 분석하는 것과는 편차가 있다. 또한 논증적 측면에서 그가 말하는 거짓 예언자의 위안을 주는 주제(선택, 언약, 성전 불가침성)이 이미 오경의 신학 범위 내에 있으며, 다윗 언약과 시온 신학 역시 언약의 발전 선상에 있다. 직업적인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의 징표로 보고 있는데, 나단은 왕궁에 출입하는 예언자였고(겔 8:1; 11:25 등), 에스겔은 포로 중 제사장이자 예언자였으며, 예레미야와 이사야 역시 제사장들이었는 점에서 설명에 한계가 있다.

본 소고는 기록 문헌에 남겨진 예언 현상을 접근하기 위해, 신명기 지도자 법 중, 예언자에 관련된 문학적 맥락을 살펴보고자 하며 지금까지는 예언자 논쟁의 설명의 한계와 맹점을 풀어보고자 한다.

3. 신명기 지도자 법 중, 18:15-22절 접근

1) 예언자의 자격 요건

신명기 18장은 신명기 12-26장까지 이어지는 신명기 법전의 지도자법(신 17:14-18:22) 내에 위치한다. 신명기 지도자법은 신정 왕국의 공무원인 왕, 제사장(과 레위인), 예언자의 자격과 임무를 언급하고 있다. 예언자들은 제사장직이나 왕직과는 달리, 하나님의 법의 수호자들이었다.¹⁶ 그들은 하나님의 독특한 소명으로 일으키심을 받았다. 신명기 18장 12-35절에 부합한 이스라엘의 예언자의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예언자는 “너희 가운데”(신 18:15) 있는 “네 형제 중 한 사람”(신 18:18)이어야 한다. 즉, 이스라엘인으로 언약의 유산을 공유한 자여야 한다.
- ②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신 18:18)에서 증언되는 바와 같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다는 뚜렷한 소명과 사명이 있다.
- ③ 예언자는 야훼의 이름으로(“내 이름으로 전하는”, 신 18:19)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이다.
- ④ 동시에 예언자에게는 하나님은 권위가 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음은 곧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다. 예언자는 야훼의 이름으로 말하는 특권(하나님의 신임장)이 부여되었다.
- ⑤ 예언자는 모세와 같은 ‘선한 목자’이어야 한다. 호렘산 총회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의 현장에서 직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여 듣지 않으려 한다.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신 18:16). 이에 하나님은 대안으로 허용하신 것이 모세의 중

16 Rolf Rendtorff, “Reflections on the Early History of Prophecy in Israel”, *Journal for Theology and Church* 4 (1967), 14-34: 26.

보직이다. 모세의 증보직 수행에 있어서 선한 목자와 같았다. 그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하였을 때 그의 목숨을 내어놓고(출 32:32) 백성 구원을 간청하는 증보기도를 올린다(출 32:11-14; 33:12-16). 또한, 깨어진 돌판을 다시 받기 위해 또 다시 호렙산에 올라 사십 주 사십 야를 금식한다(신 9:18).

- ⑥ 예언자의 메시지의 진정성은 표징으로 입증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오랜 계시를 기준으로, 예언자의 표징을 확인함으로써, 새 계시를 시험할 책임이 있었다(신 13:1-5; 18:20-22).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겔 33:33)

2) 신명기 18:15-22절과 예언 본문의 문헌화 - 문헌사적 입장

(1) 단락의 위치와 신명기 18:15-22절의 구조

신명기 18장 15-22절은 신명기 법전(신 12-26) 중, 왕정 공무원법(16:18-17:13)¹⁷의 한 규정 모음이다. 왕정 공무원법은 신명기 전체 구조의 오목거울(Brennspiegel)과 같다.¹⁸ 이 법전 단락은 한편으로는 제의 중앙화법(신 12: 13)을 사회 제도적 체계 위에 정립하여 일단락 짓고 있다(비교, 야훼 특전법).¹⁹ 다른 한편으로 본 단락은 신명기 19-25장의 물권

17 Eugene H. Merrill, *Deuteronomy* (NAC 4; Broadmann & Holman Publishers, 1994), 256.

18 Otto Eckart, *Deuteronomium 12,1-23,15* (HThKAT; Breiburg im Breisgau: Herder, 2016), 1502.

19 Jörg Halbe, *Das Privilegrecht Jahwes Ex 34,10-26. Gestalt und Wesen, Herkunft und Wirken in vorderdeuteronomischer Zeit* (FRLANT 11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호르스트(F. Horst)는 이스라엘의 법률 역사 연구에서 “Privilegrecht JHWHs” 개념을 처음 도입한다(Halbe 227, 각주 17). 야훼 특전법이란 개념을 신 12:1-18:22의 제목으로 붙였다. 할베(J. Halbe)는 야훼 특전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권한이 있는 자가 어떠한 한 약자와 관계를 맺고자 함에서 발생하는 요청이다. 특전법에서 양자는 특유한 관계에 있으며 그 관계는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충족시키고 또한 이 목적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뒷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적이고 법적조건을 허락함으로 유지된다.” (227)

법 토라의 진입구가 된다. 그러므로 왕정 공무원법의 제도적인 틀은 토라에 정착된 법규를 위한 고유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만일 왕정 공무원법을 특수한 규정들로 정교화된 십계명으로, 신명기 법전(신 12-26장)이 소 모음집 순서와 같은 진행으로 볼 경우, 전체 예언자 법(신 18:19-22)은 제5계명(부모공경)²⁰, 또는 제4계명(안식의 거룩함)²¹과 연관이 있다. 이 소 모음집은 이집트와 광야 시절 가부장적이고 가족적인 구조에서 촌락이 중심이 된 문화로 전환된 사회적 환경을 그려주고 있다.²²

신명기 18장 9-22절에서는 야훼께 가증한 행위와 금지된 이방인의 미신적 일곱 종교관습(9-14절)의 대안으로 야훼께서 세우신 한 가지 계시의 통로로써 ‘예언자직’(15-22절)을 대조한다.²³ 이러한 예언자직은 호렘산 모세 중보자 전통에 기원한다. 신명기 18장 15-22절 단락은 전기 선지서(네비임; 여호수아서-열왕기)의 주요 논점이었던 ‘예언자 분쟁’(prophetic conflict)을 소개하고 있다.²⁴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네 형제 중에”(15절), “그들의 형제 중에서”(18절) 모세와 같은 예언자이어야 하기에, 이방인의 길흉을 말하는 징조 해석가(מְוֹנְנִים/머오너님)와 신탁 해석자들(מְסֻמִּים/코서밌, 18:14)은 이 범주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비교.

20 S. A. Kaufman,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c Law”, *Maarav* 1 (1979), 105-158.

21 Georg Baulik, *Die deuteronomischen Gesetze und der Dekalog: Studien zum Aufbau von Deuteronomium 12-26* (SBS 145;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91), 22, 46-41.

22 Eugene H. Merrill, *윗글* (1994), 257.

23 Christoph Bultmann, *Deuteronomy* (OBC; Oxford: Oxford University, 2001), 149.

24 Duane L. Christensen, *Deuteronomy 1:1-21:9* (WBC 6A;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1), 405. 크리스텐젠은 신명기 18장 9-22절 법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의 역할을 해설하고 확정하는 전기 선지서의 일련의 시리즈가 나열되어 있다고 가정한다(406). A 왕정과 예언 — 예언자 대 예언자(왕상 13) / B 갈멜산의 엘리야 — 바알 예언자들과 거름(왕상 18) / X 이세벨의 위협에 직면한 엘리야의 투쟁(왕상 19:1-8) / B’ 호렘산의 엘리야 — 모세와 같은 예언자(왕상 19:9-18) / A’ 왕정과 예언 — 예언자 대 예언자(왕상 22). 이 구조의 핵심에는 모세와 같은 인물의 예언자 엘리야가 있으며, 그는 바알 이교도 예언자와 싸우고 있다.

18:20).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의 이름을 예언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배교이다(신 17:2-7).

이 소단락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 | | |
|----|-------|---------------------------|--|
| I | 15-16 | 호렙산에서 백성의 예언 증개자 요청 | |
| II | 17-19 | 야훼의 모세와 같은 예언자 임명 | |
| | 17 | 백성의 태도에 대한 야훼의 승인 | |
| | 18 | 예언자 임명 약속 | |
| | 19 | 예언자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함(중형 선고) | |

| | | | |
|-----|-------|--------|--|
| III | 20-22 | 부칙(보충) | |
| | a) | 20 | 예언자에 대한 중형 선고 경우 a. “제 마음대로” 예언 b. 다른 신들의 이름의 예언 |
| | b) | 21 | 백성의 의문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אִיכָּה גִּרְעֵ אֶתְהַדְבָּר) |
| | c) | 22 | 기준: a. 증험, b. 성취 |

(2) 중심 주제 - 누가 참 예언자인가와 그 척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쟁적인 주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누가 참 예언자인지 알 수 있겠는가? 만일 다른 신(들)을 대변한다면 이 경우는 명확히 판가름 난다(20절b).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두신 예언자이다. 그러므로 그는 참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신 18:18).

하지만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모두 같은 권위에 호소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전형적인 경우가 예레미야 28장의 예레미야와 하

나나 간의 분쟁이다. 두 예언자 모두 스스로 참 예언자로 믿고 있다(비교. 시드기야 대 미가야, 왕상 22). 신명기 18장 20절^a는 야훼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כִּי/חַיִל, ‘주제넘게(or 건방지게) 행동하다’; 비교. 겔 13:3,17; 램 14:13-15)²⁵ 야훼의 이름으로 전할 경우를 상정한다. 이런 경우 백성들은 야훼의 이름에 의탁한 예언자가 모두 호렘산 계시의 모세적 권위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가 주제넘은 예언을 하는지 아니면 참 예언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예언자의 직(職)이 공적인 신분인 것을 고려한다면 백성들이 느꼈던 혼란은 더 가중되었을 것이다. 예언자로 칭해지는 모든 사람은 야훼가 그들이 임명했다고 자부하거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22절은 참 예언자의 경우 두 가지 척도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예언의 증험이다(וְלֹא יִהְיֶה הַכְּבָרִי, ‘그리고 그 말씀(말)이 일어나지 않는다’).²⁶ 이 구절은 이사야 55장 8-11절 이하의 ‘말씀의 신학’과 맥을 같이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כִּי הִיא כְּמַי)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사 55:11). 야훼의 말씀은 — 예언자의 사사로운 말이나 한 인간의 말도 아니라 — 스스로 발생시키고 사건을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다(חַיִל, 꺾/효일).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환경을 조성한다.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이다(וְלֹא בֹא, ‘그리고 그것이 적중하지 않는다’).²⁷ 첫 번째 척도와 유사하나, 두 번째 ‘성취’ 기준은 말씀의 조성적

25 Gen¹⁸, 298a.

26 S. Amsler, “הִיא *hjh* sein”, *THAT I* (1971), 477-486. “Aber wie im Wunderbericht, so kann auch im Bericht über banale Geschehnisse *hjh* immer noch die Dynamik dessen, was durch Jahwes Handeln geschieht, bezeichnen — auch wenn der Mensch nicht immer darin Gottes Hand erkennen kann (Pred 1, 9).” (481)

27 E. Jenni, “בֹּא *bō* kommen”, *THAT I* (1971), 264-269. 신적인 용법으로 사용될 때, 단

측면보다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그 말씀은 점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따라서, 그 말씀은 (부분적) 성취의 과정을 거쳐 완전한 성취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은 말씀 성취의 장기적 국면을 암시하고 있다. 두 번째 경우로 인한 예언자들의 탄식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는 들려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사 5:19)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렘 17:15)

에스겔이 활동할 당시, 이런 메시지는 대중적인 ‘신학적 슬로건’²⁸이 되어 회자(回刺)되었다. 미성취된 예언은 이미 여러 세대에 거쳐 백성들 사이에 비교적 잘 알려져 있었다.

그렇다면, 한 예언자의 예언이 야훼가 그 입에 넣어주지 않은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18장 19절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야훼는 반드시 그를 직접 처벌한다(MT אָנְכִי אֶרְשׂ מִעַמּוֹ, ‘내가 친히 그를 청산할 것이다.’; cf. LXX ἐγὼ ἐκδικήσω ἐξ αὐτοῦ, ‘내가 그에게서 심판을 집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22bβ לֹא תִנְוֶר מִנְּנִי ׀, ‘너는 걱정하지 말지라!'). 거짓 예언은 먼 미래적 역사 과정 속에 야훼가 확실히 청산할 것이다(겔 13:8-9). 설령 예언(자)의 진실성 여부가 의심된다 할지라도 야훼의 역사의 다스림은 참 예언(또

순한 시간 표현(Zeitausdrücke)뿐만 아니라, 예고된 사건이 적중과 성취(eintreffen, sich erfüllen)로 사용된다(266).

28 William McKane, *Proverbs: A New Approach*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30.

는 참 예언자)을 통해서 이어진다. 예레미야 26장 10-16절과 28장 9절은 참 예언과 거짓 예언에 대한 이와 같은 소송 건을 다루고 있다.

(3) 논점의 종착점 - 예언의 문헌화 과정

예언자 말씀의 생성적 측면과 성취적 측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예언자가 참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판명보다는 야훼의 이름을 선포된 예언자 말씀의 성취 여부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감별의 판단은 유보된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어떤 성경의 것이든지 야훼의 이름을 선포된 말씀은 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예언자의 진위여부가 유보되고, 오로지 선포된 말씀의 성취(증험) 여부로 예언자들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추후적으로) 입증된다. 신명기 18장 22절에 제시된 범주에 따르면, 예언자들이 다방면으로 활동하였던, 심지어 예언자 단체 간의 분쟁도 생겨나던 왕정기 시대 중 백성들은 참-거짓 예언자를 구별할 수 없다.

현재까지 전승되어 남겨진 예언은 결과적으로 참이었음이 입증된 예언이어서 기록되어 문헌상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문헌화된 예언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질문해 볼 수 있다. 성경 내에 여러 증거를 통해 재구성될 수 있는 과정과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예언 말씀의 신탁이 공포된 이후, 예언자 주위에 그를 따르거나 옹호하던 경건한 그룹들이 이 예언을 보관한다. 그런 다음,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을 경우 그 즉시 기록하였는지(*vaticinium ex festu*), 성취되었더라도 시절이 좋지 않았을 경우 사건 성취 이후에 기록으로 남긴 경우(*vaticinium post festum*)를 상정해 볼 수 있다.²⁹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헌화 되면서 신실한 그들이 따랐거나 지원했던 그 예언자 참 예언자였음을 후세 사람

29 Martin Rösel, *위글* (1996), 66ff.

들을 위해 — 소명 기사와 행적, 그리고 역사적 전후 상황을 함께 엮어서 — 전수하여³⁰, 백성들로 깨닫고 과거의 죄악을 깨닫고 현재의 순종으로 내일을 전망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사야 8장 6절과 예레미야 36장 1-4절은 — 왕정의 정세가 혼란한 시절 — 예언자 말씀의 보관 경건한 관습을 보도하고 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후에 남길 때 여러 말(사건)들을 더하였다고 한다. 예레미야 36장 3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서 주며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공적 문서나 기록)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문자화) 그외에도 그 같은 말을 더 하였더라”(문헌화) (וְכָתוּבִים רַבִּים כְּהַמָּוֶה וְעוֹד נִסְּף עֲלֵיהֶם, 그리고 또한 이들에 더하여 이들과 같은 수많은 사건(또는, 말)을 더하였다.)

(4) 요약

신명기 18장 15-22절은 왕국의 공무원인 예언자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자세에 마지막 초점을 두고 있다.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은 이방신의 이름으로 시행될 경우 명확히 판명되며, 야훼의 예언자일 경우 당대 사람들로서는 사건이 성취되기 전일까지 마지막까

30 Gehard von Rad, 윗글 (1993), 63. “Damit wird deutlich, daß die Niederschrift des Berufungsberichtes neben der Berufung selbst ein zweites Ereignis war, das eine andere Abzweckung hatte als das erste. In der Berufung selbst wurde dem Propheten sein Auftrag übermittelt; die Niederschrift dagegen geschah im Hinblick auf eine gewissen Öffentlichkeit, der gegenüber der Propheten sich zu rechtfertigen hatte. [...] sondern eben eine Niederschrift [...] in der der Vorgang zweifellos schon in einer gewissen Stilisierung wiedergegeben wird.”

지 기다릴 것이 요청된다.

결국, 야훼는 반드시 — 어느 장소나 각 시대에 필요한(*ubi et quando necesse est*)³¹ —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킬 것이고, 야훼의 이름으로 전달된 예언은 야훼 자신과 같은 말의 권위로(신 18:19) 타당성이 있음을 말한다. 또한, 예언자의 품행에 있어서 모세(의 성품)와 같지 아니하며, 제멋대로 주제넘게 행동하는 자(신 18:20)는 최소한 야훼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거짓 예언일 수 있음을 예상케 한다. 분명한 것은 예언이 선포될 당대에, 적어도 야훼의 이름으로 선포된 서로 상반된 성격의 예언자 말씀인 경우, 어떤 예언자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상반된 메시지일 경우, 그 판명은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내에는 그 최소한의 준거가 명시되어 있다.

(5) 부설 - 예언의 판명은 가능한가?

신명기의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마음’(가슴)에 새기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얻거나, 신탁을 구하고자, 하늘 위로도 땅 아래로 먼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은 이미 자명한 것이다. 그것은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입에 심히 가깝다’. 목이 곧지 아니하며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신 15:9), 마음에 할례받은 자들(신 10:16; 30:6)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 30:14. כִּי־קְרִיב אֱלֹהֶיךָ הַדְּבָר מְאֹד בְּפִיךָ וּבִלְבָבְךָ לְעֲשׂוֹתוֹ 5)

31 동사 구문론적으로 볼 때, 신명기 18장 15절의 *x-yiqtol*은 반복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동사 קָמַ (쿰/서다)의 히필형(‘세우다’, 18:15, 18)은 예언성에 반영된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전문용어(*terminus technicus*) 이다(L. Peritt, *Mose*, 1971, 597). 참조. Otto Eckart, *윗글* (2016), 1497.

‘마음’, 조금 더 세분화 되고 발전적인 의미에서, 사람의 중심, 또는 사람의 양심이 그 판명의 기준이다.³² 예언 선포된 말씀이 복이던, 화이든, 중심이 완고하지 않는 자, 시대적 양심이 있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다. 예언자 법뿐 아니라 왕정 공무원법 전체는 모세의 호렙산 계시에 바탕을 둔 (미래 시대의) 이상적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³³

결국, 신명기의 참 예언의 판명 기준은 사람의 중심이라는 지혜적인 교훈으로 그 논점을 옮겨주고 있다.

4. 사본 전승에서 보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예언자 연구에서 있어 ‘참 예언자 대 거짓 예언자’ 접근을 종합해 보자면, 크게 두 가지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다.³⁴ 첫째, 거짓 예언자는 고대 근동의 종교관습을 실행하는 자들로 종전까지 많이 주장되었다. 둘째, 참-거짓 예언자 문제는 예언자 그룹 간의 편차와 그로 인한 내부 갈등으로 시대사적으로 유력한 견해이다. 이러한 입장은 앞에서 살펴본 예언자들의 활동의 지리적 범위와 활동 장과 왕정 당시 직능적 차원을 고려할 때, 더욱 개연성을 얻고 있다.

사실상 히브리 성경에는 ‘거짓 예언자’에 상응하는 용어가 부재하다.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예언자가 ‘허위 사실’(fake news)을 유포한다는 개념이 오늘날 상용되고 있는 ‘거짓 예언자’란 개념에 가장 근접한 개념일 것이다(비교. 왕상 22:22f; 대하 18:21f; 사 9:14; 렘 5:31; 6:13; 8:10;

32 F. Stolz, “לב *leb* Herz”, *THAT I* (1971), 861-867.

33 Otto Eckart, *윳글* (2016), 1503. “Das Ämtergesetz ist eine in der mosaisch erzählten Zeit verortete Prophetie eines idealen Israel in der Zukunft der Erzählzeit.”

34 Aaron Schart, “Prophetie/AT”, <https://www.bibelwissenschaft.de/stichwort/31372/>.

14:4; 23:14,25f; 27:10,14-16; 28:15; 겔 13:22; 속 13:3). ‘거짓 예언자’라는 고유명사적 개념을 처음 성경 사본에 도입한 것은 LXX의 성경 번역이다. 가장 오래된 예언서 고대역으로는 BC 1세기 Nahal Hever의 ‘12 예언서 두루마리’로 알려져 있다.³⁵ LXX는 일부 히브리 본문에 사용된 ‘나비’(נְבִיאִים)를 ‘위(偽) 선지자’(ψευδοπροφήτης)라는 용어로 번역함으로 통해서(비교. 렘 6:13; 33:7f.,11,16; 34:9; 35:1; 36:1,8; 속 13:2), 활동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독자들을 위해 해석적으로 삽입하게 되고, 결국 ‘거짓 예언자’란 새로운 용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거짓이란 말의 히브리적 개념은 쉼베르(שֶׁמֶר)는 ‘기만’, ‘사기’, ‘속임’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적 개념의 거짓 예언자보다는 ‘그릇된 예언자’란 용어가 더욱 적절할 것이다. 즉, 그들이 이미 양심적으로 사실이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법하다. 하지만, 그들은 야훼께서 심비에 새기신 토라의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다른 말로 꾸며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신개념 도입은 LXX가 MT 본문에 충실하지만, 초기 유대교의 본문 이해를 반영한 결과이다. LXX는 이를 통해서 히브리 본문과 결이 다른 신학적 특이성과 강세를 마련한다.³⁶

5. 나오는 말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와 마찬가지로 왕정 공무원 중에는 예언자란 직책이 있었다. 성경 내에는 소명 기사가 소개된 예언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예언(서)도 있다. 왕정 시대나 왕정 시대의 역사를 듣고 있

35 Martin Karrer/Wolfgang Kraus, *Septuaginta Deutsch*. Erläuterung und Kommentare I. Genesis bis Makkabäer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1), 20.

36 Martin Karrer/Wolfgang Kraus, *윳글* (2011), 28.

는 수신자들의 시대에는 그 용어조차 다양하여 개념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성경 내에는 시대별로 지리적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예언자 용어가 사용된다. 또한, 예언자들이 활동하는 분야는 실로 다양하였다. 그들은 궁실, 왕정, 제단, 예언자 단체, 그리고 자유로운 예언 등으로 부름을 받아 여러 곳에 종사하였다. 신명기 18장의 예언자법에 따르면, 야훼 하나님은 이방 열국의 가증한 행위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시행된 예언 행위나 그들이 행하는 미신적인 행위의 수단들을 금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는 깨어있는 독자라면, 이 금령이 왕정 시대 내내 효용성이 없었거나 미미했다는 것을 발견한다.

신명기 18장 15-22절은 어떻게 예언을 판별할 수 있는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준다. 야훼의 이름을 말하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 꾸며내어 오만하게 예언하는 자들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시간(시절)을 두고 반드시 엄중히 다루신다. — ‘너는 네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헛되게 입에 올리지 말지라 야훼는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입에 올리는 자를 처벌하지 않고 두지는 않으심이라!’ (신 5:11). 반면, 참 예언의 말씀은 역사 조성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취되기에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한번 야훼의 이름으로 공포된 예언과 예언자의 진실성 여부는 백성들로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어떤 예언이든 공포된 예언은 작은 문서의 형식이나 구전의 형식으로 깨어있는 제자 그룹에 의해 보관되고, 이후에 예언된 사건이 역사적으로 성취될 경우, 이를 문서화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증험이 있는 야훼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히게 한다. 당대 수신자들에게 예언(자)의 진위(眞僞) 여부는 예언자 내부 분쟁이나 갈등으로 보여졌을 것이다.

왕조와 나라의 운명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을 과연 판별이 불가능한 것인가?

이에 대해 예언자 법은 침묵한다. 다만, 신명기 포고의 큰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신명기적인 (이상적이고) 양심적인 신자의 경우, 이를 분별할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의 법은 그들의 심비에 새겨져 있으며, 마음과 입에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다(신 30:14). 신명기 18장의 예언자와 예언성의 진위(眞僞) 여부는 미래적 경고이나 회복에 대한 예측 이전에, 복을 줄자도 화를 줄자도 야훼임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확실한 자들에게는 계시될 여지를 준다.

일찍이 BC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호세아가 남긴 책은 지혜의 말씀으로 전체를 마감한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와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지리라”(호 14:9). 대저,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한다(잠 1:22). 거짓된 수신자는 거짓된 예언을 따를 것이고, 진실한 수신자는 참된 예언을 따를 것이다! —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하나님은 백성과 시대적 요청을 미리 내다보시고,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그를 대언할 예언자를 필히 세우신다(신 18:18). 예언의 진실성 여부는 예언자 자신의 진실성 여부, 그리고 진실한 삶의 태도를 지닌 경청자들을 요청한다.

이러한 단순하지만, 복잡한 인생의 통합적인 측면³⁷을 마소라 본문은 간파하고 있으며 거짓 예언자 대신, 허위 정보나 (사실을 알고 있지만, 또 다른 개인적 목적을 가지고) 기만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을 개념어, 쉘케르(שֶׁקֶר)란 용어를 사용한다. 거짓 예언자는 없고, 다만 거짓된 예언을 하는 ‘그릇된 사람만’이 존재한다. 거짓 예언자(위 예언자)란 용어가 처음 도입된 것은 BC 1세기경 LXX의 번역이었다.

37 Eckart Otto, “Die »synthetische Lebensauffassung« in der frühköniglichen Novellistik Israels: Ein Beitrag zur alttestamentlichen Anthropologie”, ZAW 74 (1977), 371-400.

참고문헌

- 강철구, “심판선언양식을 통해 본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숨은 의도”, 「구약논단」 25집 (2019년 9월), 130-157.
- 김래용, “예레미야 25-44장의 메시지: 3단계 구성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8집 (2022년 9월), 10-42.
- 레온 우드, 「이스라엘의 선지자」 (김동진 옮김), (서울: CLC, 2012).
- J. 맥스웰 밀러/존 H. 헤이즈,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박문재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 오토 카이저, 「구약성서신학 III」 (원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12).
- 에리히 쉐어, “애가”, 쉐어(편), 「구약성경 개론」 (이종환 옮김), (경북 왜관: 분도출판사, 2012).
- 윌리엄 반 게메렌, 「예언서 연구」 (채천석 옮김), (서울: 솔로몬, 2013).
- Amsler, S., “היה *hjh sein*”, *THAT I* (1971), 477-486.
- Baulik, G., *Die deuteronomischen Gesetze und der Dekalog: Studien zum Aufbau von Deuteronomium 12-26* (SBS 145;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91).
- Bultmann, C., *Deuteronomy* (OBC; Oxford: Oxford University, 2001).
- Christensen, Duane L., *Deuteronomy 1:1-21:9* (WBC 6A; Nashville: Thomas Nelson, 2001).
- Ernst, J., “בָּאוּ *bō'kommen*”, *THAT I* (1971), 264-269.
- Halbe, J., *Das Privilegrecht Jahwes Ex 34,10-26. Gestalt und Wesen, Herkunft und Wirken in vordeuteronomischer Zeit* (FRLANT 11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 Otto, E., “Die »synthetische Lebensauffassung« in der frühköniglichen Novellistik Israels: Ein Beitrag zur alttestamentlichen Anthropologie”, *ZAW* 74 (1977), 371-400.
- Eckart, O., *Deuteronomium 12,1-23,15* (HThKAT; Breiburg im Breisgau: Herder, 2016).
- McKane, W., *Proverbs: A New Approach*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 Martin, K./Kraus, W., *Septuaginta Deutsch. Erläuterung und Kommentare I. Genesis bis Makkabäer*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1).
- Merill, Eugene H., *Deuteronomy* (NAC 4; Broadmann & Holman Publishers, 1994).
- Peterson, David L., *The Roles of Israel's Prophets* (JSOTSS 17; JSOT, 1981)
- Rendtorff, R., “Reflections on the Early History of Prophecy in Israel”, *Journal for*

Theology and Church 4 (1967), 14-34.

Ross, James F., "The Prophet as Yahweh's Messenger", Bernhard W. Anderson/Walter Harrelson(eds.), *Israel's Prophetic Heritage* (Essays in Honor of James Muilenburg; London: SCM Press, 1962), 111-121.

Rösel, M., *Bibelkunde des Alten Testaments* (Neukirchen: Neukirchen-Vluyn, 61996).

Schart, A., "Prophetie/AT", <https://www.bibelwissenschaft.de/stichwort/31372/>.

Stolz, F., "לֵב *lēb* Herz", *THAT1* (1971), 861-867.

von Rad, G.,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I: Die Theologie der prophetischen Überlieferungen Israels* (KT 3; Gütersloh: Chr. Kaiser, 101993).

검색어

예언, 참 예언, 거짓 예언, 문헌화, 예언자법

True and False Prophets Left in the Written Records: Socio-Historical and Literary-Historical Approaches to the Evaluation of the Prophet

Min-Su Oh
Daeshin University

Deuteronomy 18:15-22 does not discuss the qualifications of a prophet as an official of the kingdom, but rather focuses on God responding to Israel's demands and the attitude of the people waiting for the fulfillment of God's word. True prophecies and false prophecies are clearly identified when they are implemented in the name of a foreign god, and in the case of YHWH's prophets, the people during the time are asked to wait until when the event is fulfilled. After all, YHWH will surely — in every place and at every age (*ubi et quando necesse est*) — raise up prophets like Moses, and prophecies delivered in YHWH's name, with the authority of words of YHWH himself (Deut 18:19) indicate their validity. Also, it is expected that the prophet's behavior is not like Moses' character, and he who behaves presumptuously (Deut 18:20) at least acts in the name of YHWH but may be a false prophet. Those who speak the name of YHWH, but fake what is in their heart and prophesy arrogantly, God, who governs history, will deal severely with them — “You shall not speak the name of YHWH your God in vain. YHWH does not leave unpunished those who speak his name in vain!” (Deut 5:11). On the other hand, the words of true prophecy not only have the

www.kci.go.kr

ability to create history, but also have to wait until the end because they are gradually fulfilled. However, any prophecy that has been announced is kept by a group of awakened disciples in the form of a small document or oral tradition, and later, if the prophesied event is historically fulfilled, it is documented as a testament to future generations. To the recipients of the time, the authenticity of the prophecy would have been regarded as an internal dispute or conflict within the prophecy. The Masoretic text penetrates the integrative aspect (synthetische Lebensauffassung) of complex life, and instead of false prophets, people who deliver false information or deceptive messages (knowing the facts, but with another personal purpose) are called as 'sheker' (שֶׁקֶר). There are no false prophets, only 'false people' who choose to prophesy so. The term false prophet (ψευδοπροφήτης) was first introduced in a translation of the LXX around the 1st century BCE.

key words

prophecy, true prophecy, false prophecy, textualization, prophetic law

투고일 : 2023년 10월 06일

심사일 : 2023년 10월 29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11월 02일

www.kci.go.kr